

# 광주 화물차 주차공간 확인 '허술'...밤샘주차 '악순환'

운수사업법 신고때 차고지 증명 필수  
자치구, 인력 부족 등에 서류 의존도 ↑  
개별면 아닌 주소 기준 탓 '포화 수용'  
"제도 실효성 제고·인프라 확충 시급"

광주 5개 자치구가 화물차 등록에 필수적인 차고지의 확인을 허술하게 해 밤샘주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행 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공영 차고지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동구 47대, 서구 1천388대, 남구 709대, 북구 2천481대, 광산구 6천992대 등 총 1만2천291대다. 이 중 영업용은 ▲동구 171대 ▲서구 711대 ▲남구 487대 ▲북구 1천611대 ▲광산구 5천888대 등 총 8천873대(약 72%)였고 나머지는 자가용으로 집계됐다.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는 등록하려는 지자체의 관내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영업용의 경우 관외에도 상관 없지만, 마찬가지로 차고지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각 자치구에 등록된 화

물자동차 차고지는 동구 23개소, 서구 363개소, 남구 507개소, 북구 199개소, 광산구 1천770개소로 나타났다.  
노조는 차고지마다 주차면의 수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체 화물자동차 대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고 소재지만 입력하는 구조다 보니, 실제 주차 가능한 면수보다 그 이상으로 등록을 받는 차고지 운영 업체들이 있다"며 "한 대가 밖에서 운행 중이면, 다른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고지 확보 여부를 서류로만 확인하다

보니 현장에서 겪는 '포화 수용' 문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와 일반 주민들도 불편을 겪는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라도 차량 등록 당시 차고지 운영 실태도 함께 살필 수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차고지 업체들도 '포화 수용'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지만, 화물차 특성상 주차 상태보다 운행 중인 시간이 많아 '탄력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속사정을 전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주·야간 운행을 구분해서 화물차 등록을 받고 있지만, 일이 유동적이다 보니 정한대로 늘 운영되진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운전자들의 주차 불편을 해결

하기 위해선 공영차고지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자치구들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화물차 등록 당시 차고지가 실제로 주차 가능한 상태인지까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차고지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서류와 지적도, 항공사진 등을 통해 주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신청건을 현장 방문해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운행 특성상 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찬용 기자

## 삼성 노조 간부 발언 '지역·학력 비하'로

최근 파업 둘러 "회사 없애..." 언급  
논란 일자 "잘못된 관행 개선 의미"  
온라인 커뮤니티 광주 특정 교고 거론  
비하 잇따라... "혐오문화 반복 안돼"

광주 출신 삼성전자 노조 간부의 발언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역·학력비하로 번지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삼성전자 노조 간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광주 한 특성고등학교를 비하하는 취지의 글이 게시돼 있다.  
글쓴이는 "산배 잘 못 뒤서 학교 후배들의 삼성전자 입사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며 "내가 회사 오너라고 해도 삼성 없애겠다는 사람의 후배는 뽑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날 기준 조회수 8만회를 넘겼고 댓글 130여개가 달렸다.  
앞서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소속 간부는 노조 텔레그램에서 파업 동참을 독려하며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 각오로 전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해당 간부는 "기업 자체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노조를 무시하거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에는 "전라도가 또...", "호남 애들은 대기업 입사 불가일 듯", "공고 출신 보내 필터 없음 인증인가", "80년대 공고 나온 애들이 원래 돌대개리임", "면접관이 눈치가 있다면 이 학교는 거르겠다"는 등 광주와 전라도 출신을 싸잡아 비난하고, 공업계고

출신을 비하하며, 채용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역·학력비하 표현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사람이 문제지, 학교 문제냐"며 개인의 문제를 출신 학교와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안준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 학력을 조롱하는 문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차별적 표현들이 '재미'나 '밈'처럼 소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며 "개인의 발언을 출신 지역이나 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혐오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둘러싼 5·18민주화운동 관련 논란 역시 우리 사회가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가깝게 받아들이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며 "서로 다른 집단을 쉽게 조롱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사회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연상 기자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책임자 4명 구속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책임자 중 일부가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2일 발부했다. A씨 등 4명은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와 관련, 시공사 측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감리단장이다.  
이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안전 감독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11일 노동자 4명이 숨지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인재명 기자



'하이, 푸룻마켓'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중요성을 알리는 '하이, 푸룻마켓'이 지난 13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시립수목원 방문자센터 일원에서 열린 시민들이 환경보호 문구가 적힌 블록게임을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 국조실, '직장 내 괴롭힘' 소방관 사망 조사

음주 강요·감찰 요구 목살 의혹 등  
유가족·노조 "진상 규명 철저" 촉구

지난해 광주 지역 한 소방 공무원 A(20대·여)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14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지난 12일 광산소방서를 찾아

A씨가 근무했던 부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A씨의 사망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가족이 제기했던 음주 강요나 감찰 요구 목살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의 유가족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A씨는 장기간 반복된 음주 강요와 희석 중심 조직 문화, 사적 심부름, 상급자의 권위 통제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스로 삶을 마감한 A씨의 사망 면직서에 남자친구와의 불화를 기재하는 등 책임을 유가족 측에 전가하려는 '2차 가해'가 있었다며 전방위적인 조사와 함께 조직 문화 전체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으로만 남아서 안 된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찬용 기자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